



오는 30일로 워크아웃 1년을 맞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구조조정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조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2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직원들이 완성된 타이어를 검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금호 워크아웃 1년, 졸업 보인다

초기 강도높은 구조조정... 계열사 흑자 전환 성공

2009년 12월 30일, 호남 유일의 10대 그룹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진들이 고개를 떨궜다. 대우건설·대한통운의 잇단 인수로 인한 무리한 자금 동원과 글로벌 금융 위기,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그룹이 벼랑 끝에 내몰리자 주력 계열사를 사실상 채권단 손에 넘겼다. 그룹의 모태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석유화학은 자율협약, 대우건설은 매각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그로부터 1년 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다시 비상사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2009년 12월 30일, 호남 유일의 10대 그룹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진들이 고개를 떨궜다. 대우건설·대한통운의 잇단 인수로 인한 무리한 자금 동원과 글로벌 금융 위기,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그룹이 벼랑 끝에 내몰리자 주력 계열사를 사실상 채권단 손에 넘겼다. 그룹의 모태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석유화학은 자율협약, 대우건설은 매각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그로부터 1년 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다시 비상사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나폴라자 자본 등 자산 매각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의 연이은 매각을 통해 그룹 재무구조 개선, 조기에 워크아웃을 졸업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자산 매각이 지연되고 금호타이어와 금호고속 등 계열사들의 노사 갈등이 경영 정상화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대한통운 매각 추진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주력 계열사의 실적 호전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 졸업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자산 매각이 지연되고 금호타이어와 금호고속 등 계열사들의 노사 갈등이 경영 정상화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대한통운 매각 추진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주력 계열사의 실적 호전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 졸업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자산 매각이 지연되고 금호타이어와 금호고속 등 계열사들의 노사 갈등이 경영 정상화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대한통운 매각 추진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주력 계열사의 실적 호전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 졸업한다는 전략이다."

2009년 12월 30일, 호남 유일의 10대 그룹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진들이 고개를 떨궜다. 대우건설·대한통운의 잇단 인수로 인한 무리한 자금 동원과 글로벌 금융 위기,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그룹이 벼랑 끝에 내몰리자 주력 계열사를 사실상 채권단 손에 넘겼다. 그룹의 모태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석유화학은 자율협약, 대우건설은 매각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그로부터 1년 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다시 비상사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2009년 12월 30일, 호남 유일의 10대 그룹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진들이 고개를 떨궜다. 대우건설·대한통운의 잇단 인수로 인한 무리한 자금 동원과 글로벌 금융 위기,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그룹이 벼랑 끝에 내몰리자 주력 계열사를 사실상 채권단 손에 넘겼다. 그룹의 모태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석유화학은 자율협약, 대우건설은 매각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그로부터 1년 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다시 비상사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2009년 12월 30일, 호남 유일의 10대 그룹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진들이 고개를 떨궜다. 대우건설·대한통운의 잇단 인수로 인한 무리한 자금 동원과 글로벌 금융 위기,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그룹이 벼랑 끝에 내몰리자 주력 계열사를 사실상 채권단 손에 넘겼다. 그룹의 모태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석유화학은 자율협약, 대우건설은 매각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그로부터 1년 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다시 비상사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2009년 12월 30일, 호남 유일의 10대 그룹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진들이 고개를 떨궜다. 대우건설·대한통운의 잇단 인수로 인한 무리한 자금 동원과 글로벌 금융 위기,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그룹이 벼랑 끝에 내몰리자 주력 계열사를 사실상 채권단 손에 넘겼다. 그룹의 모태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석유화학은 자율협약, 대우건설은 매각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그로부터 1년 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다시 비상사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 전남과학대학

강운태 시장 "R&D특구 내년초 결론낼 것"

박준영 지사 "F1대회 조직위 중심 치를 것"

시·도지사 송년 기자회견

광주시는 연구·개발(R&D)특구 지정과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시공업체 선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내년 초까지 모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전남도는 내년 포블러윈(F1)대회를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치르고 여수엑스포 등 4대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강운태 광주시장은 27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광주 R&D(연구·개발) 특구 지정 문제와 관련 중앙 관계부처 협의가 내년 1월 중순 끝나면 1월 하순께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해 특구 지정에 관한 언급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R&D 특구는 대덕연구단지외 개념이 다른 연구·생산복합단지 조성을 하고, 일본과 중국 연구진이 참여하는 개방형 특구로 만들기 위해 일본 및 중국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이날 ▲좋은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지역균형발전 ▲미래성장동력 기반구축 ▲소통 및 인권신장을 2011년 4대 중점시책으로 발표했다.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 문제와 관련해 강 시장은 "선수촌은 화정주공 아파트에 반드시 짓는다"며 "건설업

체가 지방 건축경기 등을 감안해 미분양을 걱정하고 있는데, 광주도시공사 일부 미분양 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은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와 관련 27일 오후 공동체원탁회의, 29일 윤봉근 광주시회의장과 지역 국회의원 8명 등이 참여하는 10인 대책위원회를 가진 뒤 30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행복한 공동체 전남' 만들기 위해 주력한 한 해였다"며 "F1대회 성공 개최 등을 통해 도민이나 공직자 모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박 지사는 특히 전남에서 열린 첫 국제행사인 F1대회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전 세계의 이목을 전남에 모았으며 모터스포츠산업 육성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첫 대회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운영법인인 카보(KAVO)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대회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카보 정영조 대표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지사는 또 최근 무산된 여수엑스포 SOC 국고지원 예산과 KTX 무안공항 경우에 대해서는 29일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직접 만나 해결방안을 찾았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내년도 농업인과 농업·농촌이 두루 발전하는 '3농 정책'과 일자리 창출, 4대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기업하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 데 조직의 역할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장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주~광양 고속도로 내년 상반기 개통

전주~남원은 오늘 개통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핵심 기반 시설인 전주~광양 고속도로가 내년 상반기 개통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주~광양 고속도로(117.8km) 중 전주~남원 구간(65.6km)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28일 오후 2시부터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

총 1조2520억원이 투입된 전주~남원 구간은 지난 2004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6년 만에 개통하게 된다. 이번 개통으로 전주에서 남원까지 국도를 이용할 때보다 운행거리는 13.5km(79→65.6km), 주행시간은 30분(71→39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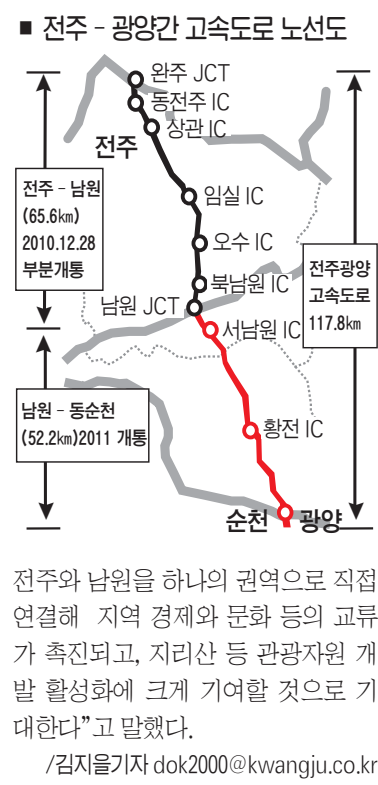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통으로

또 연간 515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량도 3만t가량 줄어 연간 66억원의 환경개선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전주~광양고속도로 중 이번에 개통되지 않는 나머지 남원~동순천 구간(52.2km)을 내년 상반기에 개통하겠다고 밝혀 여수박람회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남도와 여수시는 내년도 전주~광양 고속도로 건설 예산 요구액보다 432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박람회 성공 개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통으로



알림

'종교칼럼' 필진 바뀝니다

광주일보의 '종교칼럼'이 2011년부터 새로운 필진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개신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성직자들이 들려주는 참세상살이의 길잡이 '종교칼럼'은 매주 금요일 연재됩니다. <가나다 순>



- ◇김주영 교무 (원불교 장성교당 교무)
▲영산선학대학교 졸업 ▲원불교 수계농원 교무 ▲원불교 중앙총부 교무
- ◇서달원 신부 (고흥 소록도성당 주임신부)
▲광주가톨릭대 대학원 졸업 ▲천주교광주대교구 남평 주임 ▲천주교광주대교구 남동 주임
- ◇이원재 목사 (광주무등교회 담임목사)
▲충신신학대학 졸업 ▲미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박사과정 ▲광주 기독교교단협의회 상임부회장
- ◇지장 스님 (무등산 중심사 주지)
▲실상사 화엄학원 졸업 ▲익산 관음사 주지 ▲(사)대원장학회 이사장

光州日報社

촉촉함이 깊어져요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언제부터가 매일 바르던 보습제품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과 만나보세요. 지구상의 그 어떤 물보다 생명력 넘치는 깊은 바다의 마린 에너지가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감싸 피부 깊숙이 깊은 보습과 영양을 전해 드립니다.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바를수록 깊어지는 촉촉함을 느껴보세요.

- 마린 플라센타* 콜라겐을 함유하여 피부에 닿는 순간 미세열이 풍부한 해양산중수와 심해의 보습 성분들이 빠르게 흡수되어 수분막을 형성합니다.
- 피부 구성성분과 유사한 탄수화물 복합체, 자정성분 등이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을 높입니다.

리리코스는 카운셀링 전문 제품으로 뷰티아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처 문의: [종로점] 무등점 062-225-5056 / 서문점 062-222-5005 / 상무점 062-228-8048 / 중정점 062-573-8802 / 광주송정점 062-241-6666 [전남점] 목포지사 061-205-2007 / 순천지사 062-222-0155 / 여수지사 061-832-0614 [전북권] 군산지사 063-468-3173 / 전주지사 063-286-0636 / 호남제일지사 063-279-2010